

	중국(상하이) 해외사무소 해외동향보고서	작성팀	마케팅지원팀
		담당자	전택규 소장
		일시	2025. 2.

CEPA Insight

- 중국, 2024년 1인당 가처분소득 5.3% 증가
- 中, 1월 제조업 PMI 49.1%, 전월 대비 1.0%p 하락, 제조업 경기 둔화
- 中 해관총서, 중부지역 발전 가속화 조치 발표
- 상하이, 올해 GDP 성장률 목표 5% 제시

■ 중국, 2024년 1인당 가처분소득 5.3% 증가

- 중국 국가 통계국은 지난 21일 중국 31개 성의 2024년도 가처분소득 데이터를 공개했다고 22일 신경보(新京报)가 보도했다. 도시보다 농촌의 1인당 가처분소득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4년도 1인당 가처분소득은 41,314위안으로 전년보다 5.3% 상승했다. 물가 인상 요인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5.1% 상승했다. 도시 1인당 가처분소득은 54,188위안으로 지난해보다 4.6% 상승했다. 물가 요인을 제외하면 4.4% 상승했다. 농촌의 경우 23,119위안으로 6.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1인당 가처분소득 5만 위안 이상인 지역이 5곳이다. 상하이, 베이징의 경우 1인당 가처분소득이 85,000위안을 넘어섰다. 상하이는 88,366위안으로 1위, 베이징은 85,415위안으로 2위를 기록했다. 1,2위 간의 간격은 그리 크지 않지만 나머지 지역과의 격차는 적지 않다. 3위인 저장성만 해도 1인당 가처분소득이 67,013위안이다. 저장성은 도시 1인당 가처분소득은 78,251위안, 농촌은 42,786위안으로 격차가 지난해보다 줄었다.
- 저장성 외에 지난해 가처분소득 5만 위안 이상인 지역은 장쑤성, 톈진

시, 광둥성이다. 푸젠성, 산둥성, 네이멍구와 랴오닝성은 7위~10위를 차지했다. 네이멍구, 충칭, 후난성, 후베이성, 안후이성의 경우 중서부 지역 가처분소득 상위 5위 지역으로 중서부 지역 공업화와 도시화가 높다.

- 상하이와 베이징은 경제 정치 문화도시로 도시화율이 높고 신항산업, 첨단 기술 산업, 현대 서비스업 등이 매우 발달해 있다. 국내 기업 외에도 외국계 기업들의 본사가 많아 고소득 일자리로 많은 인재를 끌어들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고소득 업종인 정보 전송, 소프트웨어 및 정보 기술 서비스, 금융업, 과학 연구 및 기술 서비스업인데 베이징과 상하이에 이런 고소득 산업이 집중되어 있어 주민들의 평균 소득이 높은 편이다

※ 관련기사 링크: <https://baijiahao.baidu.com/s?id=1821460235770883388&wfr=spider&for=pc>

■ 中, 1월 제조업 PMI 49.1%, 전월 대비 1.0%p 하락, 제조업 경기 둔화

- 1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는 49.1%로 전월 대비 1.0%p 하락
- 항목별 지수** 변화를 보면, 생산 지수 49.8%(2.3%p ↓), 신규주문 지수 49.2%(1.8%p ↓), 원자재재고 지수 47.7%(0.6%p ↓), 종사자 지수 48.1%(전월 동일), 공급업체 배송시간 지수 50.3%(0.6%p ↓)
- 非제조업 PMI는 50.2%로 전월 대비 2.0%p 하락
 - 업종별로는 건설업 49.3%(3.9%p ↓), 서비스업 50.3%(1.7%p ↓)

* 제조업 PMI: 제조업 부문 구매관리자의 활동 수준을 측정하는 지수로,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기대를 나타냄

** 세부지수

- 생산 지수: 50% 이상이면 생산 증가를 의미(공급 반영)
- 신규주문 지수: 50% 이상이면 신규주문 증가를 의미(수요 반영)
- 원자재재고 지수: 50% 이상이면 제조업체들이 원자재 구매를 늘려, 재고가 증가하고 경기가 호전됨을 의미
- 종사자 지수: 50% 이상이면 종사자 수 증가를 의미(취업상황 반영)
- 공급업체 배송시간 지수: 50% 이상이면 당월 수주 및 물류 수요 증가로 배송시간이 더 소요됨을 의미(물류 상황 반영)

※ 관련기사 링크: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zfxgkj/2799825/302274/302275/6312783/index.html>

■ 中 해관총서, 중부지역 발전 가속화 조치 발표

-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 12일 중부지역 발전 가속화를 위한 핵심 조치를 발표했으며, 다음 5가지 측면에서 중점 추진할 계획
 - ① 중부지역을 내륙 개방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철도-해상, 항공-육로 연계 운송 확대, 자유무역시험구 설립, 국경간 무역 활성화
 - ②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입 과학기술 장비에 대한 통관 비용 절감, 첨단 제조업 성장 지원, RCEP 협정 이행 강화
 - ③ 중부지역이 새로운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종합보세구역의 이점을 활용한 가공무역 시범지구 조성, 中-아프리카 경제협력 심화
 - ④ 식량·에너지 안보를 위해 유럽산 곡물 검역·검사 절차 개혁, 재생 원료 수입에 대한 스마트 관리 방식 도입
 - ⑤ 생태환경 보호 및 저탄소·녹색 성장을 위해 위험물 검사 및 방역 강화, 신흥 기업의 인증 경영자(AEO) 취득 지원 등
- 중부지역은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해관총서는 상기 조치를 통해 중부지역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할 방침

※ 관련기사 링크: <https://baijiahao.baidu.com/s?id=1821008263101161171>

■ 상하이, 올해 GDP 성장률 목표 5% 제시

- 재신망(财新网)에 따르면, 상하이시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공정(龚正) 상하이시 시장이 지난해 상하이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며 GDP 5조 위안(990조 5,500억원)을 돌파해 성장률 5% 내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이어 올해 상하이 GDP 성장률로 지난해와 같은 5%를 제시했다.

- 공정 시장은 지난해 성과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상하이시는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무역 보호주의 강화, 국내 수요 부족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어 “상하이 경제는 외부 의존도가 높아 외부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다”면서 “대외 무역 및 외국인 투자 안정에 어려움이 확대되고 일부 기업은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신·구 동력 전환이 원활하지 않고 일부 핵심 기술이 제약을 받아 전면적 심화 개혁을 더욱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이에 앞서 지난 2022년, 2023년 상하이시는 GDP 성장률 목표로 5.5%내외를 제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도시 봉쇄,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각각 전년 대비 -0.2%, 5%에 그쳐 2년 연속 목표치에 못 미쳤다.
- 2024년 상하이 경제성장률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은 국제 무역과 금융 거래였다. 정부공작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하이 대외 무역 수출입 총액은 4조 2,700억 위안(846조 1,005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1.67%로 2023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 공정 시장은 2025년 상하이시가 수행해야 할 주요 과제로 ▲내수 확대 및 외수 안정으로 경제 안정적 성장 유지 ▲국가 주요 전략적 임무를 적극 수행하고 높은 수준의 개혁 개방 심화 ▲새로운 질적(新質) 생산력 발전 육성에 힘쓰고 현대화 산업 시스템 구축 ▲도시 계획 건설 수준을 높이고 초대형 도시의 발전 방식 전환 가속화 ▲향촌 진흥 전략 실시 및 도시 농촌 융합 발전 추진 ▲문화 혁신 창조 활력 활성화 및 국제 문화 대도시 건설 ▲아름다운 상하이 구축 및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현대화 추진 ▲도시 거버넌스 현대화 추진 및 도시 안전 수준 향상 ▲보편적, 기초적, 보장적 민생 건설 강화, 민생 복지 추진 지속 등을 제시했다.